

‘담배를 피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라고 자주 말해지곤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의 피해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자주 TV에서 방송한 것을 들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권리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독재주의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의 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나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면 담배를 피우면 되잖아 라고 자주 말했었습니다.

해서는 안될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